

취업기혼남녀의 일-생활균형요인과 관련요인분석 :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근로자를 중심으로

심 지 양(울산대 대학원)

일과 생활의 균형에 대한 관심의 증가는 한국 사회 전반의 인구사회학적 환경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우선 인구 고령화의 진행으로 가족원의 부양노동을 필요로 하는 노인인구가 급증하는 한편, 기혼여성의 취업증가로 가정영역과 직장영역의 일을 모두 담당해야 하는 근로자의 수가 증가하기 시작한 점을 들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성역할 규범이 약화되면서 남성의 가족역할 참여에 대한 사회문화적 기대와 요구가 증가한 것도 일-생활 균형의 이슈가 남녀 공동의 문제로 부각되는 계기가 된 것으로 지적된다. 남성과 여성은 역할의 의미와 요구 그리고 그에 대한 심리 구조적인 자원의 배부 방법 등이 남녀 간에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Simon, 1995) 남녀가 모두 포함된 자료를 통해 일-생활 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남녀별 효과를 살펴보는 연구로의 확장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취업기혼남녀를 대상으로 그들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일-생활 균형수준과 생활만족도를 살펴보고 그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남녀의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연구대상은 기업의 지원 부분을 살펴보기 위하여, 고용형태는 무관하나 해당 기업의 정책이나 제도를 적용받는 20대에서 50대까지의 회사원 기혼 남녀로 선정하였다. 자료수집은 2010년 7월부터 2010년 9월까지 진행되었다. 자료의 분석으로는 먼저 빈도, 평균, 백분율,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t-test와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을 통해, 일-생활 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하였다. 통계 처리는 SPSS windows 12.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자는 총 318명으로 남성응답자는 174명이고 여성응답자는 144명으로 나타났다. 전체 가구 소득은 평균 430만원, 가족원 돌봄시간은 평균 187시간, 교육수준은 대졸이 40.9%로 가장 많았다. 부모동거여부는 각각 하지않는다는 경우가 90%정도로 나타났다. 근무년수는 평균 10년, 직무용통성과 직무통제감은 각각 3.12, 3.12로 중간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종은 사무직(30.8%)이 가장 많았고 직위는 평사원(54.1%)이 가장 많았으며 직장의 근로자수는 1000명이상(30.2%)이 가장 많았다.

일-생활균형제도시행여부는 남성과 여성 모두 60.4%와 66.0%로 절반이상으로 나타났으나 사용여부를 보면 남성은 23.6%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고 여성의 경우 56.9%로 절반이상의 많은 사용률을 볼 수 있었다. 조사대상자의 일-생활균형정도는 3.09로 보통 정도로 나타났다. 남성은 3.16으로 전체 평균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고, 여성은 3.00으로 전체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생활만족도는 3.04로 보통 정도로 나타났다. 남성은 3.07으로 전체 평균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고, 여성은 3.01으로 전체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 일-생활균형정도는 생활만족도와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일-생활균형정도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생활균형수준과 생활만족도는 각각 남성이 여성보다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인구학적 특성 중 연령과 성별이 일-생활균형의 유의한 설명변수로 나타났으며, 39세이상

이 균형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가정환경적특성 중 가사분담비교만이 일-생활 균형의 유의한 설명변수로 나타났으며, 배우자가 한다고 할수록 균형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개인/가정/직업환경적 특성 변수들 중 대개의 설명력은 직업환경적 특성 변수에 집중되었으며, 그 중 동료지지가 가장 큰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남녀를 구분하여 변수를 탐색한 결과, 남성은 주말근로시간, 직장 내 가정생활수용정도, 상관지지, 가사분담비교가 남성의 균형감을 높이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직종, 직무통제감, 평일 야근시간, 동료지지, 본인소득이 여성의 균형감을 높이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남녀 모두 일-생활균형에 대한 대개의 설명력이 직업특성변수에 집중되어 있었다. 본 연구는 연구대상이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취업기혼남녀이므로 제한적이어서, 추후연구에서는 확장해보면 좋을 것이다. 또한 남녀는 생활에 대한 기준의 차이가 있으므로 부부를 대상으로 하면 그에 대한 차이를 알 수 있을 것이다.